

# 추다혜차지스 “곳에 매력…무속음악 핑키함 보여주고 싶었다”

첫 앨범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발표

음악 전문가·마니아들 ‘올해의 음반’ 호평

“멤버들은 곳을 할 때 무당의 행위나 즉흥성 혹은 리듬이, 힙합·블랙뮤직에 가깝다고 느껴요.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음악이라 다양한 장르가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밴드 ‘추다혜차지스’가 지난 5월 발매한 첫 앨범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는 올해의 기념비 같은 음반이다. 각종 결산이 쏟아지는 연말에 웬만한 음악 전문가·마니아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앨범을 거명한다.

주로 곳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 무가(巫歌)에 레게, 재즈, 힙합, 펑크(funk), 댄스, 록 등 다양한 서양 음악이 섞여 있어 합부로 장르를 구분하기 힘들다.

K팝에 쏠린 한국 대중음악이 처음 경험하는 형태다. 추다혜차지스 스스로는 ‘사이키델릭 사머니 펑크(Funk)’라고 규정한다.

추다혜차지스의 대표 추다혜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을 통해 ‘무속음악에 어떤 부분을 가장 어필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건 무속음악의 핑키(funky)함이었다”고 소개했다.

“음악적 기법이라기보다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스스로 장르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죠. 처음 음악 장르를 하나로 규정하고자 했을 때 크로스오버나 월드 음악으로 하기에 제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첫 트랙 ‘언두(undo)’부터 마지막 트랙 ‘차지S차지’까지 앨범을 천천히 들어나가다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제의처럼 느껴진다. 앨범 제목 ‘당산나무’(마을의 수호신)는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들의 무대이자 청자에게는 오래된 ‘굿판’을 연상시키는 장치다.

추다혜가 처음 곳에 대해 매력을 느낀 건 2016년이다. “그때 곳을 처음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당의 행위가 예술가의 행위 그 자체였고,

더할나위 없이 멋졌다”고 기억했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는 곳의 형태에서 무가만 추려서 낸 앨범이다. 무가 안에 ‘안녕과 평화’ ‘위로와 치유’ ‘핑키함과 자유’의 메시지를 담았다.

추다혜는 곳보다 무가에게 먼저 끌렸다.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한 요가다. 요가를 하면서 명상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만트라 음악’을 자주 들었다. ‘묘한 평안함’을 느꼈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산스크립터로 된 말로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우리나라 말로 된 만트라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가까이 ‘곳’이 있었다. “영성이 담긴 그 음악 안에 분명히 ‘치유’의 힘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2016년부터 그렇게 무가를 배우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평안도, 황해도 이북 무가들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음원을 들었는데 매력적이라, 무작정 제주도에 머무는 인간문화재 김윤수 선생을 찾아갔다.

“알고 보니 제주도의 심방(제주도 말로 무당을 칭함)은 모두 제주도에 사는 분들에게만 전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심방을 할 사람도 아닌 서울에서 온 제가 대담 선생님의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죠. 처음엔 여긴 소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추다혜의 간절함을 확인한 김윤수 선생은 전수조교인 이용욱 선생에게 배우라고 소개해줬다. “그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배움을 허락해 주신 사실 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났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일 년에 몇 번씩 선생님을 찾아뵈고 굿도 보고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서울에 계신 무당 선생님도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 두 분도 제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이번 앨범에는 평안도, 제주도, 황해도의 무가가 세 곡씩 담겼다. 신을 청하고, 부정을 씻고, 명복을 빌어주는 곳의 형식에 따라 곡을 나열했다. 평안도 무가 3곡으로 곳을 하는 이력을 읊고 신을 청하며, 제주도 무가 3곡을 중심으로 부정을 씻고 신과 인간이 어우러진다. 황해도 무가 3곡으로는 명과 복을 빌어주는 형태다.

멤버들은 ‘인디계의 어벤저스’라 불리도 아깝지 않다.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기타리스트 이시문, ‘까데호’와 ‘김오키 빼킹매드니스’의 베이시스트 김재호, 드러머 김다빈이 뭉쳤다.

이시문도 김오키빼킹매드니스에서 활동 중이다. 추다혜도 음악감독 장영규·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등이 함께 몸 담았던 민요 록밴드 ‘쌍쌍’ 출신이다.

추다혜는 일단 “밴드 음악이 좋다”고 했다. “밴드 음악은 쌍쌍에서의 경험이 전부지만, 제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논다는 걸 느꼈다”면서 “제 작업을 한다면 첫 작업은 밴드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했다.

추다혜도 ‘어벤저스 멤버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 유니크(독특함)에 특화돼 있어 순조롭게 곡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밴드 이름 ‘추다혜차지스’의 ‘차지스’는 앨범에 실린 노래 ‘차지S차지’에서 따온 말이다. “처음에 팀 이름을 정할 때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추다혜와 차지들이라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띄어쓰기 없이 정식으로 ‘추다혜차지스’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지는 순우리말로 ‘누군가의 뒷’이라는 뜻이다. 이걸 내 ‘차지’고, 이생에게 배우라고 소개해줬다. “그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배움을 허락해 주신 사실 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났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일 년에 몇 번씩 선생님을 찾아뵈고 굿도 보고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서울에 계신 무당 선생님도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 두 분도 제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서도민요(평안도 및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요)와 연기를 공부한 추다혜의 행보는 다양하다. 소리꾼, 배

우, 밴드 프런트 퍼스 등 수식도 다양하다. 무궁무진한 호기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용기”라고 답했다.

“저는 제 내면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그 안에서 많이 해답을 찾는 편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좋으면 무조건 해봐야 하고, 용기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라는 얘기다.

처음 무가를 밴드사운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예고했을 때, 쌍쌍에서의 그녀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냥 원래 했던 민요나 하라면서 새로운 작업을 말리는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정말 시도해 보지 않은 이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추다혜는 우리 음악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험했다. 지난 2017년 쌍쌍이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인기 프로그램이자, 음악 마니아들의 힙한 플랫폼으로 통하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한국 음악가 최초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통음악이 꼭 현대와 세계와 공감을 해야지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과 제 음악을 나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다운’ 즉 ‘개성’이라고 생각했다. “동시대성을 갖기 위해 혹은 이목을 끌기 위해 유행에 따른다면, 전통음악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과거의 머물러 있는 것이 왜 좋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넘겨 풀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음악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준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추다혜차



치스의 음악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고 증언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 19에 싱글앨범 3곡과 정규 앨범 1장을 냈어요. 앨범을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귀하고 힘든 순간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 저는 코로나베 이버를 낳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많이 애뜻합니다.”

올해 1월부터 녹음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관찮아지겠지’하고 넘어가다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고 좌절도 했다. 대면 공연이 속절없이 취소되기도 하고, 공연이 연기되면서 준비기간에 기가 빠진 적도 많다.

하지만 “공연을 보러 극장까지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디에선가 이

음악을 편하고 재밌게 많이 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셨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정진인 것 같다”고 여겼다.

올해 추다혜로서 서도민요 싱글을 제작하고, 추다혜차지스로서 무가 정규 앨범을 제작한 추다혜는 내년에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무가 작업을 위해서는 리서치 기간을 갖고, 서도민요로는 관객과 색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환경이라도 멈출 수는 없으니, 천천히 준비하면서 또 한 스텝씩 재밌는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 볼 계획입니다.”

# 유재석, 이번 없는 대상·이의 없는 소감…“코미디 후배·박지선” 기억

‘놀면 뭐하니?’로 ‘2020 MBC 방송 연예대상’ 대상



“MBC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 8년째입니다. 거리두기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때에, 마음 한편에는 코미디를 매일 연구하고 연습한 후배

들과 동료들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29일 오후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20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대상의 주인공은 이번 없이 유재석이

었다. ‘유스님’으로 불리는 그답게 진심이 묻어 나는 수상 소감에도 이의가 없었다.

유재석은 대상을 받은 뒤 아내인 나경은 전 아내문서를 비롯 가족 이효리·비 등 프로그램을 함께 한 동료·스태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 후배들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표하며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건 받아들이지만, 후배들이 꿈을 꾸는 무대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후배들을 위해 내년에는 사장님, 제작진이 작은 무대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날 초 세상을 떠난 개그

우먼 박지선을 기억하며 “하늘나라로 간 박지선 씨가 언젠가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못다한 웃음을 웃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해 현장에 있던 선후배들,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을 중심으로 썩쓰리, 환불원정대 등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신드롬을 일으키며 예능계와 가요계뿐만 아니라 사회를 강타했다.

특히 유재석은 올해 다양한 부캐(부캐릭터)를 선보이며 ‘놀면 뭐하니?’ 흥행의 1등 공신이 됐다. 하프를 연주하는 ‘유르페우스’, 라면을 끓이는 ‘라섹남’, 닭을 튀기는 ‘닭튀우’, 썩쓰리의 ‘유두래곤’, 환불원정대의 신박기획 대표 ‘지미유’ 등을 연달아 소화하며 ‘역시 유스님’이라는 호평을 들었다.

# ‘스위트홈’ 고민시 “이도현과 ‘사약남매’? 의도하지 않아”

남매 지간이지만 로맨스 같은 애뜻하고 묘한 케미 보여줘

배우 고민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남매로 호흡을 맞춘 이도현에 대해 언급했다.

고민시는 30일 진행된 ‘스위트홈’ 화상 인터뷰에서 “‘사약 남매’라는 애칭을 남겨주시는 걸 봤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은 남매 지간으로 등장하지만 로맨스 같은 애뜻하고 묘한 케미를 보여주며 팬들 사이에서는 ‘사약 로맨스’로 불리고 있다.

고민시는 “(이응복) 감독님이 배우들의 눈빛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감독님이 워낙 특유의 멜로 연출을 잘 하셨기 때문에 남매이지만 애뜻함이 디테일하게 보인 것 같다”고 속스러워했다.

이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됐던 게 개인적으로 팬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현장에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고민시는 “스위트홈” 촬영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가 제가 “좋은 작품에 들어가게 됐다.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도현 배우랑 ‘오월의 청춘’ 감독님이 단막극을 같이 했었다고 하더라. 혹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캐스팅이 이루어질지 몰랐다. 사약 남매를 아쉬워했던 팬 분들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위트홈’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지난 18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다. 뉴스

## ‘미스터트롯’ 대구콘서트 내년 1월말로 또 연기

**1월 29~31일로 변경**

‘미스터트롯’ TOP6의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 공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월 말로 또다시 연기됐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은 29일 예매처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8~10일 진행 예정이었던


대구 공연이 1월29~31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돼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공연’ 일정이 다시 한번 조정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다시 한번 이제까지 공연을 기다려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

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예매자들은 공연 일차만 변경되며, 회차와 좌석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대구 공연은 애초 이달에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미스터트롯’ 콘서트에는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출



연한다.